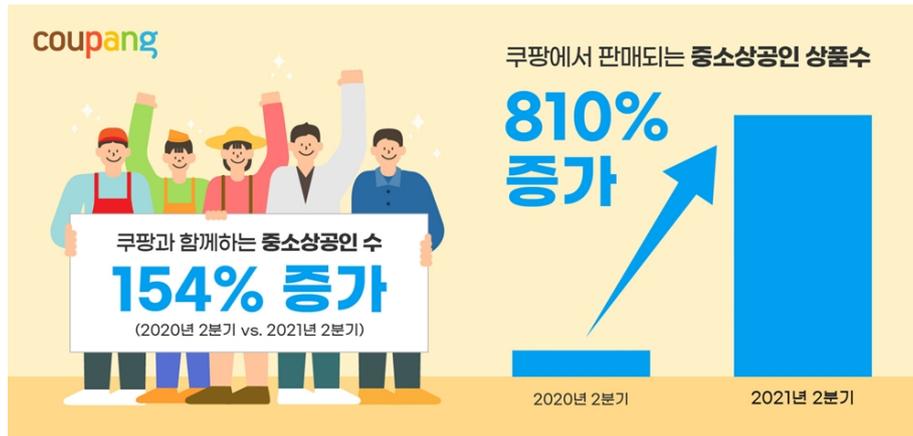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

2021. 9. 2.



- 쿠팡에서 판매되는 중소기업인 제품수 810%가량 증가해 '소상공인 친화적 이커머스'로 자리매김
- 중소기업인이 더 많은 도전과 기회 얻을 수 있도록 상생과 지원 끊임없이 펼칠 것

2021. 9. 2 — 쿠팡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처’와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쿠팡은 올해 2분기 쿠팡과 함께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수가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쿠팡의 중소기업인 수 증가율은 쿠팡 전체 판매자수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들을 더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인 상품수는 전년동기 대비 810%가량 증가했다. 특히 쿠팡 마켓플레이스 부분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쿠팡의 두터운 충성 고객층과 쉽고 편리한 이용방법, 다양한 상생 지원책들이 중소기업인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쿠팡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서울, 경북, 대구, 경남, 충북, 충남, 광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힘내요! 대한민국’ 캠페인을 비롯해 ‘소상공인 상품 전용관’, ‘지역 농수산물 전문관’ 등을 상시로 운영하며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선보였다. 앞으로도 쿠팡은 중소기업인 상생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물류 인프라와 고객을 만족시키는 빠른 배송, 간편한 결제 등 차별화된 혁신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쿠팡은 가장 친화적이고 만족스러운 판매처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쿠팡에서 더 큰 도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상생 활동을 펼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